

1 제17888호 2판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부 222-4918 송부부 2200-511
편집부 2200-639 (팩스 222-8005)
정재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다



大作 드라마 봇물

'자이언트' '대왕 세종' 등 내년 방영 목표 제작 '붐'

MBC와 SBS에서 수목드라마로 방영되고 있는 '태왕사신기'와 '로비스트' 등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해외로케이션 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작들이다.

내년에도 대작 붐은 이어진다.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작품들이 준비중에 있으며 화제의 만화 드라마로 옮겨가는 작업들도 진행중이다.

'주몽' '왕과 나'의 제작사 올리브 나인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마피아 알카포네 조직의 보스 중 한 명이자, 당대 할리우드 배우들의 후견자이기도 했던 '제이슨 리'(한국명 이장순)의 전설적인 일대기를 다룬 '자이언트'를 제작한다.

'제1공화국', '땅' 등 리얼리즘 드라마의 지평을 열었던 고(故) 김기팔 작가의 유고작 '제이슨 리'를 원작으로 한 '자이언트'는 총 20부작 드라마로 100% 사전제작에, 제작비 100억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대부분 '다모' '주몽'의 정형수 작가가 집필하며 미국 현지 올 로케이션을 추진중이다.

MBC는 사극 '이산'의 후속작으로 50부작 대작 '에덴의 동쪽'이 방영한다.

내년 4월 방송예정인 '에덴의 동쪽'은 한 날 한

시에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홍콩, 마카오, 일본 등 아시아 일대를 돌며 촬영된다. '아일랜드', '진짜 진짜 좋아해'를 연출한 김진만 PD가 작업한다.

군에서 재대한 톱스타 소지섭과 지진희·정려원이 주연을 맡은 '카인과 아벨'은 내년 2월 방영을 목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한다.

대형 사극도 속속 제작된다.

'대조영'으로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KBS는 내년 1월부터 80부작 대작 '대왕 세종'을 방영한다. 김상경이 타이틀물을 맡았으며 '왕건'에서 '궁'에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선보인 김영철이 태종 역할로 출연한다. 그밖에 문광부 장관을 지냈던 김명근, 최명길 등이 캐스팅 됐다.

올리브 나인은 매년 대형 사극 한편 씩을 제작

키로 하고 내년에는 편당 3억5천만 원 투입되는 '단군'을 만들 계획이다.

KBS는 의적 일지매를 주인공으로 한 '일지매'를 제작키로 하고 최근 이준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

'궁'의 황인뢰 PD 역시 내년 MBC를 통해 만화가 고우영의 '일지매'를 방영할 예정으로 있어 두 작품의 경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제의 만화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영화로 만들어져 18세 관람가에도 6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히영만 원작의 '타짜'는 드라마로 제작된다. '불량주부'의 강은정·선준석 작가가 대본을 쓴 '타짜'는 '외과의사 봉달희'를 통해 인기를 모은 김형식 PD가 연출을 맡았다.

인기 만화 '대물'도 시청자를 찾아간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쩨의 전쟁'의 작가 박인권의 동명 작품을 드라마로 옮길 '대물'은 여자 문제에는 일가견이 있는 제비 하유가 한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을 꿈꾸는 서혜림을 만나 벌이는 애증과 음모,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행복	21만 7천60	96만 7천736
2	라시어워	16만 7천352	62만 1천582
3	내니 다이어리	9만 8천170	40만 773
4	사랑	9만 7천325	196만 6천422
5	버킹햄 제인	8만 8천143	10만 4천728
6	카펫 베토벤	8만 6천503	9만 9천342
7	브레이브 윈	8만 1천14	9만 5천469
8	거침없이 썩라! 스태업	5만 5천928	6만 6천913
9	즐거운 인생	5만 2천988	117만 7천933
10	본 얼티메이텀	4만 9천799	197만 6천62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목	방송국·시청률
1	대조영	KBS1 30.9
2	미우나 고우나	KBS1 27.8
2	마녀의 전성시대	KBS2 26.1
4	왕과 나	SBS 23.7
5	무한도전	MBC 23.3
6	황금신부	SBS 22.0
7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19.4
8	상상플러스	KBS2 17.9
9	황금어장	MBC 17.6
10	이산	MBC 17.5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오션스13	드라마
2	만남의 광장	코미디
3	스피יד맨 3	액션
4	에반 올마이티	코미디
5	제9중대	드라마
6	기담	공포
7	300	액션
8	두사람이다	공포
9	해부학교실	공포
10	넥스트	SF

(자료제공:영화이클)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텔미	원더걸스
2	거짓말	빅뱅
3	매일매일	V.O.S
4	배반	빅마마
5	사랑은 맛있다	휘성
6	사랑 하나면 돼	백지영
7	사랑에 미치면	임정희
8	둘이라서	이루
9	못된 남자	엠투엠
10	착한 거짓말	이승기

(자료제공:멜론)



“팬 아닌 사람도 좋아할 노래 담았어요”

4집 음반 낸 빅마마

영·이영현·박민혜)의 출현과 성공은 가요계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가장력보다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던 음반 제작자들의 마인드를 바꿨고, 노래 잘하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들이 2월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4집 '블라섬(Blossom)'을 발표했다. 전작에 비해 대중적인 색채가 짙다.

“1~3집 때는 빅마마의 색깔을 찾느라 정성없었어요. 그런데 시장을 돌아보니 예전 같지 않더군요. 4집은 팬이 아닌 사람도 좋아할 음반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신연아)

2003년 데뷔한 4인조 여성그룹 빅마마(신연아·이지

“디지털 음악 시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10초 들어도 좋고, 그 순간 대중의 기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곡, 그래서 이번엔 일상적인 얘기를 주로 담았어요.”(이지영)

이 같은 판단에 SG워너비, 신혜성 등과 작업한 조영수와 손을 잡았고 노래가 대중적인 만큼, 발성과 창법을 달리하려 노력했다. 타이틀곡 '배반'과 '안부' '끝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발라드 라인업을 기반으로 슬픈 댄스곡 '소리 질러'를 비롯해 히트곡 '브레이크 어웨이'(Break Away)'는 어쿠스틱 편곡으로 리메이크했다.

이들은 4집까지 불화 없이 팀을 유지한 비결로 각 멤버의 역할 분담을 꼽았다. 신연아는 아버지, 이지영은 어머니, 분위기 메이커는 이영현, 성숙한 막내가 박민혜라는 것. 신연아와 박민혜는 무려 9살 차이다.

/연필뉴스

정강홍 목사 초청 제20회 광주광역시 복음화대행회

22일(월) 회개와 용서의 밤 23일(화) 섬김과 종사의 밤 24일(수) 은혜와 속죄의 밤 25일(목) 나라사랑의 밤

초대의 글

복음화 행회는 우리와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복음화 행회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강홍 목사 초청 20회 복음화대행회

일시: 2007년 10월 22일 - 25일
장소: 구동실내체육관(광주공원)
주최: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